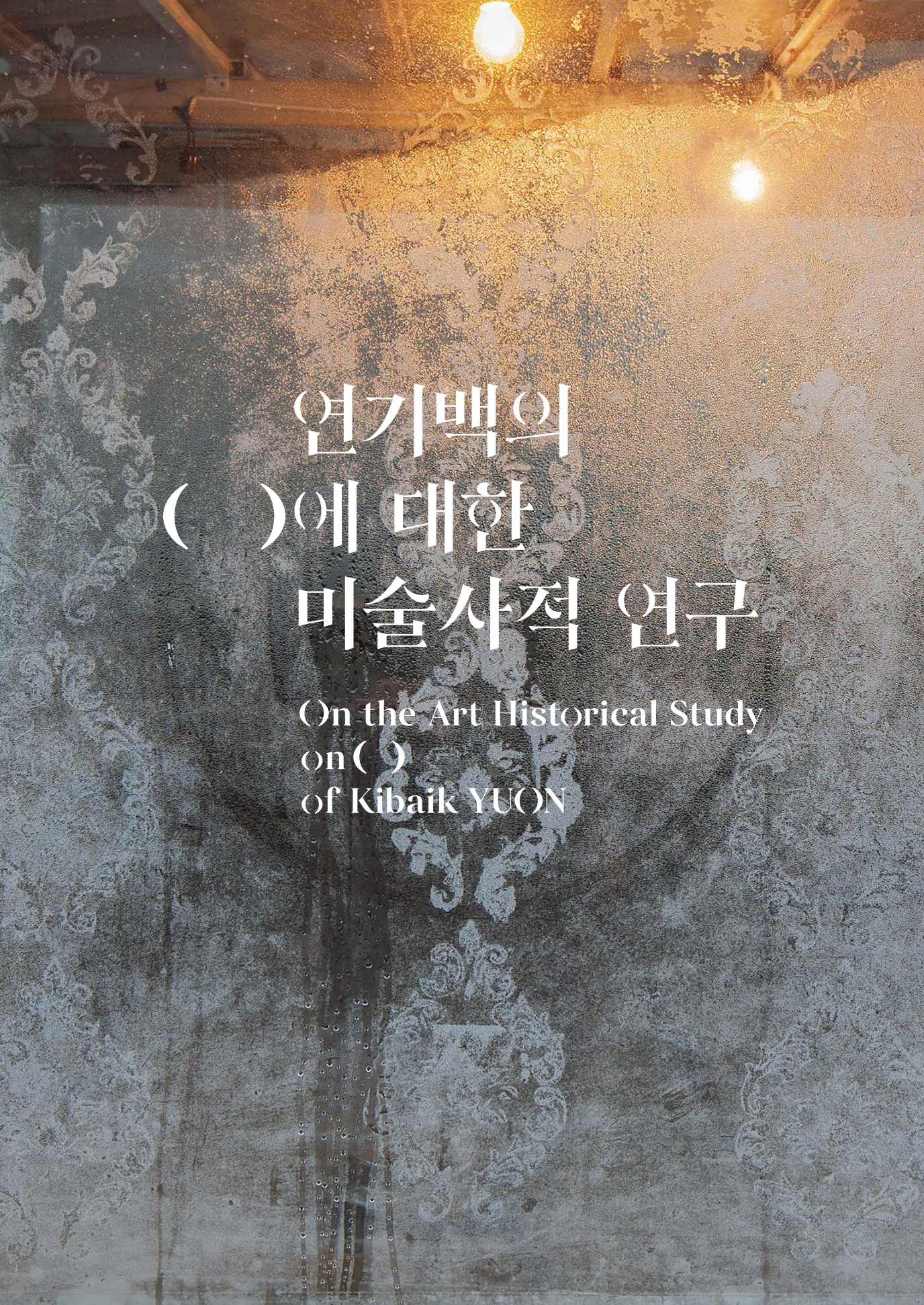


연기백의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On the Art Historical Study on ( ) of Kibaik YUON

작업 연대기

연기백(延伎栢, 1974~)은 2000년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2007년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2007년 첫 개인전 《더딤과 기다림》을 시작으로 2023년 《앉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까지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8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조각가, 설치미술가로서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작업을 관통하는 조형 방법에 대한 탐구는 학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소과 재학 초기 구상 작업을 하면서 조각과 소조의 기본 과정을 밟았지만, 버려지고 폐기된 재료를 수집하여 재료적인 물성이나 형태에 반응하는 작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상〉(1996), 〈소리〉(1997), 〈변화〉(1997) 연작, 〈탈(脫)〉(1998), 〈자연을 향한 염원〉(1998) 등을 제작하였고, 재료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을 가하거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실험 및 신체가 대상에 개입하는 퍼포먼스, 사운드 조각, 설치 등 전통 조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다.

1990년대 후반 작업 중 〈변화〉 연작의 연장선에서 철과 유리 같은 재료 및 산업재료 등에 불을 이용하여 상형문자와 같은 상을 반복적으로 세각하거나 투각하여 시간성과 수행성을 공간화한 〈떨림(Movement/Motion〉(2006~2007) 연작을 제작했다. 곧이어 기성 물건 그 자체가 지닌 재료적, 재질적, 형태적인 결을 거슬러 올라가 재조직화하는 〈더딤과 기다림〉(2007), 〈바래다〉(2008) 연작은 자개장, 풍금, 샹들리에, 도배지 등이 재료가 된 작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 자개장 표면 자개를 모두 뜯어 공간 안에 재형상화하고 나무 장을 모두 분해하여 벽면에 나열한 〈그린하이츠〉(2011), 풍금을 분해하여 보이지 않던 시간을 길어 올린 〈남겨진 ( )〉(2013)와 구서울역사에서 수거한 샹들리에를 분해하여 재설치한 〈샹들리에 공간 이용 방식 두 번째-ㄱ〉 등은 물리적 결을 따르는 조형적 태도뿐 아니라 설치적인 확장을 보여준 작업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 〈물 이용 방식 3번째〉(2015)와 같은 작업은 실생활에 나타난 제작 기술을 차용하고 번안한 것이다.

Artwork Chronicle

Kibaik YUON(1974~) earned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ulpture Department in 2000 and 2007. Starting with his first solo exhibition, “Slowness & Wait”, in 2007, he has held 14 solo exhibitions until the “About Signs of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in 2023 and has continued his career as a sculptor and installation artist by participating in more than 80 group exhibitions.

The artist’s exploration of the formative method penetrating his current work began during his undergraduate studies. While working on the conceptual work in the early days of undergraduate school, he took fundamental courses in sculpture and carving. However, he moved on to work that responded to material properties or shapes by collecting discarded and abandoned materials. He produced “Carving a Statue”(1996), “Sound”(1997), “Alteration”(1997) series, “Deviation”(1998), and “Desire for Nature(physis)” (1998). He made attempts to go beyond the categories of traditional sculptures, such as performances, sound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in which the body intervenes in objects or experiments that apply physical and chemical force to materials or transition from one state to another.

Among his works done in the late 1990s, he created a series of “Movement/Motion”(2006~2007) in which spatialized temporality and performativity by repeatedly carving out or projecting images such as hieroglyphs using fire on materials such as iron and glass and industrial materials. Soon after, the series “Slowness & Wait”(2007) and “Fade”(2008), which reorganize back to the material, textural, and shape of the ready-made object itself, became a direct instrument for work made of mother-of-pearl, reed organ, chandeliers, and wallpaper. “Green Heights”(2011), which ripped all the surface mother-of-pearl off the cabinet and reshaped in space and placed the cabinet after dissembling on the wall, and “( ) that is left”(2013) which took apart a reed organ and put up an invisible time, and “2nd spatial practical of chandelier”, which dismantled and reinstalled a chandelier collected from the old Seoul Station, are works that show not only formative attitudes of the artist but also extensions of installation. In addition, works such as “Water-Used Method Third(2015)”, created around the same time, borrowed, and interpreted the production technology that appeared in real life.

2014년부터 본격화된 도배지의 해체와 재설치 작업은 가장 널리 알려진 작업 중 하나이다. 〈인왕산이 보이는 남쪽 창이 있는 방〉(2013)을 시작으로, 재개발 지역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의 도배지를 설치한 〈교남〉(2014) 연작, 〈가리봉 133〉(2014)이 대표적이다. 낱낱이 분리된 도배지들은 시간과 장소의 증거로 전시장에 설치되고, 도배지에 남은 흔적은 사료로 보관되거나 글, 영상,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나아가 이 작업은 이 일과 연결된 사람을 만나는 일로 이어져 도배사, 도배 기술 명장, 건축 복원가 등과 교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도배를 둘러싼 생활사(生活史)와 문화사에 다가가고 그 협업의 결과물은 개인전 《마주하는 막》(2017)으로 갈무리하였다. 한편 이 작업은 교남, 가리봉에 이어 옥인, 보문, 청담, 창원(마산), 런던 등의 지역에서 수거한 도배지를 이용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예술을 매개로 한 장소 특정적인 설치 및 퍼포먼스를 작품(전시) 외에 프로젝트로 범주화하여 진행했고 대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났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차례 진행한 〈52동 106호〉가 그 시작을 알리는 작업으로 타자와 만나고 타자들이 만나는 장(場)으로서 형성되었다. 공공지 및 사유지에 방치된 물건을 매개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자 했던 〈주인을 찾습니다〉(2010), 광주의 5·18을 주변부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대화의 장으로 열고자 했던 〈탄,탄,탄〉(2017), 과거 서울대학교 농대 자리에서 쌀과 식구를 매개로 예술가들의 일시적인 공동체를 모색했던 〈쌀의 독백: 일시적 식구〉(2018), 교남동과 런던 처치스트릿를 연결하여 재개발 문제를 바탕으로 이주와 짓기의 가능성을 실험한 〈온고잉 프로젝트 처치스트릿, 교남동 마주하기〉(2022) 등으로 이어졌다. 그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역촌동 한 주택을 임대하여 진행한 〈온고잉 프로젝트 역촌 40〉은 시공간의 물리적 결을 대상적으로 살필 뿐 아니라 주변부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장소와 공간, 시간을 읽어냄으로써 그간의 방법론을 느슨하지만 총괄적으로 적용하였다.

The re-installation of the wallpaper after dismantling it,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4,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works of the artist. Starting with “A room with the South window that can see the InWang Mt.”(2013), “Gyonam”(2014) and “Garibong 133”(2014), in which he installed wallpaper from redevelopment areas or the residence of migrant workers, are representative. The separated wallpapers were installed in the exhibition hall as evidence of time and place, and the traces remaining on the wallpapers were stored as historical archives or recorded in texts, videos, and photographs. Furthermore, this work leads to meeting the people related to the work, and he interacts with the paper hangers, master of wallpaper, and architectural restorers. Through this, the artist approaches the life history and cultural history surrounding the wallpaper, and the result of the collaboration was finalized with the solo exhibition “Act Facing Act”(2017). Meanwhile, this work led to works using wallpapers collected from different regions such as Okin, Bomun, Cheongdam, Changwon(Masan), and London, following Gyonam and Garibong.

The artist categorized the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t specific places through art into projects other than artworks(exhibitions), and most of them took place on the sites. “52 Building 106,” conducted 13 times from 2008 to 2021, was formed as a place where met with others and the others met. After, it led to “Finding The Owner”(2010), which the artist created with the hope of being related to people through objects left unattended in public or private lands, “Tan,Tan,Tan”(2017), which interpreted 5·18 Gwangju Uprising as a place of dialogue by interpreting it from a peripheral perspective, and “Monologue of Rice: Temporary Mouths to Feed”(2018), which sought a temporary community of artists through rice and family members at the formal site of the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ngoing Project Facing Church St. & Gyonam”(2022), which connected Gyonam-dong and London Church Street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y of relocation and construction based on redevelopment issues. Among them, “Ongoing Project 40 Yeokchon”, in which he rented a house in Yeokchon-dong, Seoul, from 2018 to 2021, applied the methodology loosely but comprehensively by reading places, spaces, and times with people with peripheral views as well as examining the physical connections of time and space.

그동안 작가가 진행한 작품 및 프로젝트 등은 그것이 물리적 대상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 특정 주제나 의제를 부각하기보다 대상의 물리적 결을 따라 시간을 감수하고 대상에 간과된 내용을 몸으로 마주하는 일이 주를 이룬다. 관찰하는 대상의 제작 방식이 조각의 형식이 되고, 물리적인 특성이 조각의 양감이 되었고, 깎고, 만들고, 덜고, 붙이는 조각적 과정은 지워진, 간과된 ( )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개인전 《앉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2023)는 그간 자신의 전 작업을 되돌아보고 제작 방법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전시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시는 그간 작가가 주목했던 폐기된, 버려진 사물들이 이전에 있었지만 사라진 실재였다는 것, 근대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 간과된 것이었음을 재개념화한다. 그리하여 근대로부터 비롯된 인간과 삶의 변화를 앉음과 일어섬이라는 인간 행위 안에서 벌어지고 구현하려던 것의 상(象)이라 명명하고, 〈대지 속으로〉(2023), 〈( )의 땅〉(2023), 〈두 개의 구축〉(2023) 등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개요

「연기백의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작업 시작기부터 2023년까지의 전 작품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팀은 작품뿐 아니라 기존 원고, 작가 노트, 전시 이력 등을 목록화하는 작업과 함께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요 작품과 프로젝트의 제작 동기 및 제작과정을 기술하는 해제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필진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은 작가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고, 자료 및 작품 연구를 통해 전공과 관심사가 투영된 원고를 작성하였다. 미술사학자 진휘연의 「태도가 형태가 된 작가: 나의 자리에 타인을, 타인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조각가의 총체미술」, 미술평론가 최태만의 「시간의 복원과 복원된 기억을 기록하기」, 미학자 에치젠 토시야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을 드러내다: 연기백의 조형 원리」, 책임 연구자 신양희의 「마주하기, 대면하기의 잠정적 총괄로서의 역촌 40」을 생산하였다. 작품 해제글과 연구글 뒤의 아카이브 섹션에는 주요 작품 목록, 주요 작가노트, 선정한 기존 평론, 전시이력을 제시하여 작가의 전체적인 작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Works and projects conducted by the artist so far are based on accurate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object, whether it is a physical object, place or person. Rather than highlighting a specific topic or agenda, the main focus is to take time according to the object's physical texture and face the overlooked contents with the body.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object of observation became the form of sculptur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became the mass of the sculpture, and the sculptural process of sharpening, making, reducing, and attaching was not different from the way the finding the erased, overlooked ( ). The latest solo exhibition, "About Signs of Sitting Down and Standing Up"(2023), was an exhibition in which the artist reflected on his previous work and applied comprehensive production methods and attitudes. In addition, this exhibition reconceptualizes that discarded and abandoned objects, which the artist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were realities that once existed but disappeared through modern times and were overlooked. Therefore, the artist named the changes in humans and lives arising from the modern era the sign of what was happening and implemented within the human act of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and presented the works such as "Into the Earth"(2023), "The Land of ( )"(2023), and "Two Constructions"(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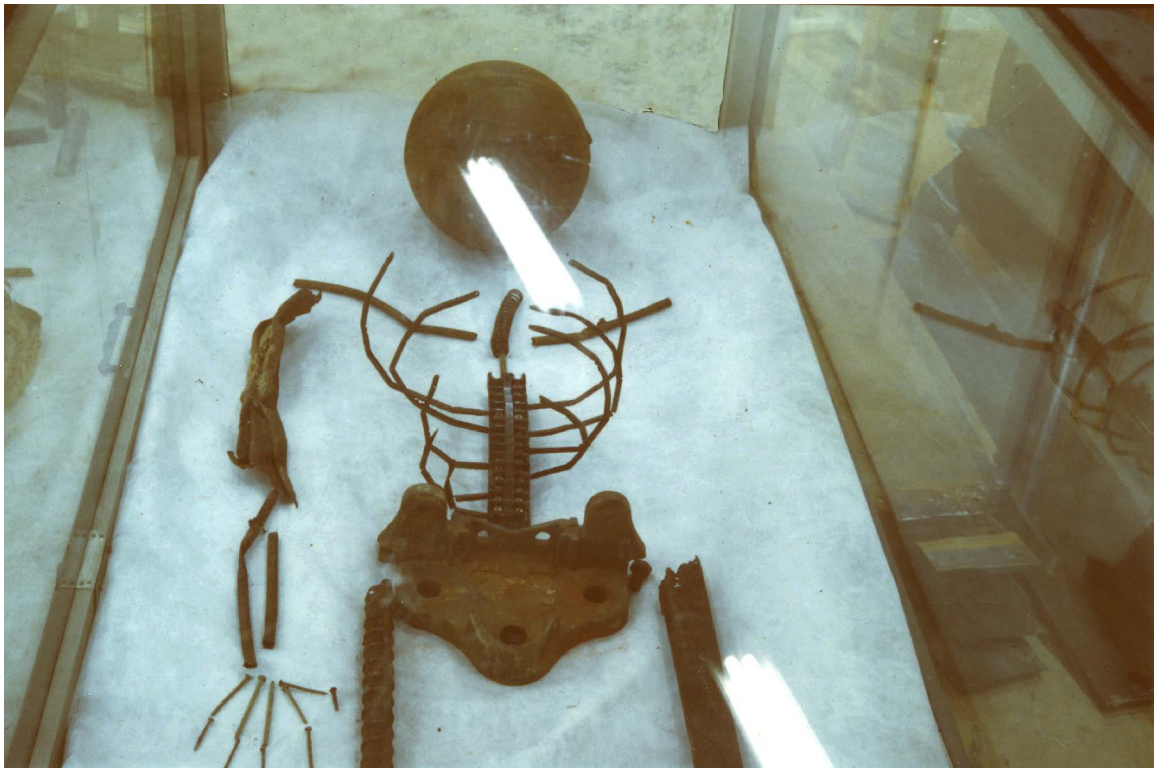
Study Onview

The Art Historical Study on ( ) of Kibaik YUON studies all works and projects from the artist's earliest work produced in the mid-1990s to the latest in 2023. Along with cataloging the works, existing texts, artist's notes, and exhibition history, the research team conducted several interviews to write an article describing the production motivation and process of major works and projects. In addition, the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as writers held individual meetings with the artist and wrote a manuscript that reflected their major and interests through data and work research. The research team produced Jin, Whuiyeon's "The Artist Whose Attitude Became the Form: The collective art of a sculptor who puts others in their place and puts them in other's place," an art critic Choi Taeman's "Recording the Restoration of Time and Restored Memory," an art theorist Toshiya Echizen's "Watching Changes, Revealing It: The Formative Principles of Kibaik YUON," and Shin Yanghee's "40 Yeokchon as provisional whole of acing, encountering".

주요 작품
및 프로젝트

Selected Works
and Projects

변화 1997 철재 오브제 가변크기
Alteration 1997 Steel objet Dimension variable



학부 재학 때 '변화'를 키워드로 한 연작을 제작한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수거하여 형태와 물성을 연구하여 설치물로 제작하고, 버려진 페인트 통을 수집해 표면을 연마하고 플라스마 절단기로 좁은 간격으로 잘라 야외에 방치 후 녹이 슬고 변형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교내에서 발견한 철재나 나무 등의 오브제를 수집하여 박물관식 설치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 등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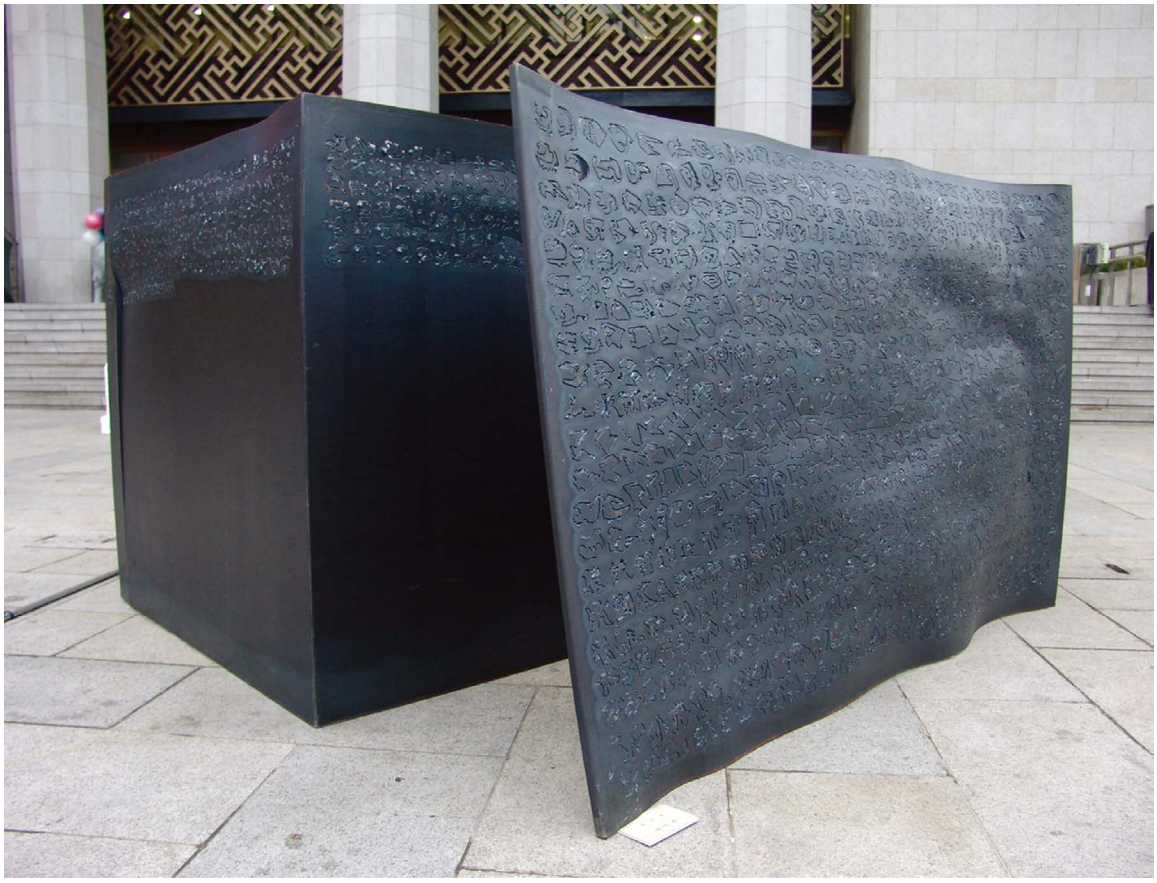
The artist produced a series of works with the keyword 'Alteration' during college. He collected branches that had fallen on the ground, studied their shape and physical properties to produce them as installations, collected discarded paint tins, polished the surface, cut them at narrow gaps with a plasma cutter, and observed the process of rust and deformation after leaving them outdoors. Also, he collected objects made of steel or wood found on campus and created works, explor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rough museum-style installation.



개미드로잉 2003 종이에 잉크 108×79cm
Drawing by ants 2003 Ink on paper 108×79cm

학부 졸업 후 작가는 삶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으로 5년 동안 공백기를 가진다. 재야의 장인을 만나 몸 공부를 하고, 기체조나 요가 등을 하면서 미술 작업과 동떨어진 수행의 시간을 갖는다. 이 드로잉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후의 첫 작업으로 전환기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이 그린 드로잉 위를 지나가는 개미를 발견하고, 며칠 동안 개미가 지나간 길을 A4 용지에 따라 그려 나간다. 그 종이들을 모아 두꺼운 펜으로 선을 그어 하나의 라인으로 만든 지도 형태의 드로잉이다.

After graduating from undergraduate school, the artist had a five-year gap year when he went through an existential agony about life. He met a hidden craftsman to learn about the human body, did gymnastics and yoga, and had time for practice far from the artwork. This drawing is the first work after returning from such a time and is a work in a transition period. The artist finds an ant passing by on his drawing and, for a few days, draws the path of the ant on A4 paper. It is a drawing in the form of a map made into a single line by collecting the papers and drawing a line with a thick pen.



동(動) 2005 철에 투각 150(h)×200×200cm
Movement 2005 Engraved on steel 150(h)×200×200cm

드로잉 작업을 통해 익힌 추상적인 기호 같은 상을 유리, 철과 같은 산업재료에 새긴 작업이다. 〈떨림〉과 〈동(動)〉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했지만, 재료적인 특성 차이로 다른 결과를 얻는다. 각인기(刻印機)로 유리피스에 상을 새길 때는 표면의 유리가 갈리며 유리가루가 일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철판은 산소절단기를 반복하여 새길 때 고열로 인해 주름처럼 우글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동(動)〉은 124×720cm 크기 철판에 상들을 투각하여 뒤틀린 철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각 형태의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This is the work of engraving an abstract symbol-like image learned through drawing work on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glass and iron. “Motion” and “Movement” were created in the same way, but different results came out due to differences in material properties. When engraving the image on the glass piece with an engra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to which the glass on the surface was ground and glass powder occurred. Still, the iron plate was wrinkled due to high heat when the oxygen cutter was repeatedly engraved. “Movement” is created as a square-shaped sculpture in which a 124×720cm steel plate is attached to the wall to engrave the images, and then the twisted iron plate is rolled inside.



캐비넷 2006 폐철 캐비넷에 투각 120(h)×90×40cm
Cabinet 2006 Engraved on abandoned iron cabinet 120(h)×90×40cm

유리나 철과 같은 산업재료에 형을 새겨 물성 변화를 탐구한 작업 후 일상 사물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나아간다. 컴퓨터, 가스레인지, 낙엽, 유리병, 페트병, 신문지, 종이 등에도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투각하는 데 재료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 상을 변주하며 진행하였다. 〈캐비넷〉은 구불구불한 선의 형태로 촘촘히 투각하여 철 캐비넷의 기본형태는 유지하면서도 표면 물성을 다르게 변화시킨 조각이다.

After exploring the transformation of physical properties by engraving the shapes on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glass and iron, the artist proceeded to work using everyday objects. Computers, gas stoves, fallen leaves, glass bottles, plastic bottles, newspapers, and paper were also carved using an oxygen welding machine, and the image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Cabinet” is a sculpture that is densely carved in the form of a curved line to change the surface properties differently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hape of the iron cabinet.



더딤과 기다림-공예책상 2007 버려진 목재 공예책상 80(h)×110×60cm
Slowness & wait-craft desk 2007 Abandoned wooden craft desk 80(h)×110×60cm

작가는 서랍이 빠진 상태로 버려진 공예 책상을 발견하고, 이를 작업실로 옮긴다. 공예 책상을 한동안 관찰하고, 몽땅해진 조각도를 주워 이를 도구로 작업했다. 이 작업은 깎아서 덜어내는 일을 일컫는 조각의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깎아낸 표면의 각 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묘기하듯(곡예하듯) 깎은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매일 매일 깎으면서 대상에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작가는 무의미할지도 모르는 반복적인 행위이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속하면 의미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며 작업하였다.

The artist finds an abandoned craft desk with the drawer removed and moves it to where artist studio. He observed the craft desk for a while, picked up a short and worn sculpture knife, and worked with it. This work applied the concept of sculpture, which refers to cutting and removing, but it was cut as if it were a stunt(like a acrobatic) so that each side of the cut surface did not fall off. It focuses on how the body reacts to the object by cutting it daily without a specific purpose. The artist worked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be a meaningful work if continued, no matter how trivial it might be and meaningless to continue.

더딤과 기다림-두드린 오브제 2007 보도에서 주운 철 오브제 가변크기
Slowness & wait-abandoned metal objects 2007 Found metal object Dimension variable



주변에서 모은 철 오브제를 얇게 두드린 작업이다. 머리핀, 단추, 못, 철사, 지퍼 손잡이, 옷핀, 서류용 핀, 라이터 철 부속 등을 불에 달구어 망치와 기타 도구로 두드려 편 것이다. 알루미늄 캔 꼭지는 불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여 달구지 않고 두드려 펴고, 주물 형태로 쇠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지퍼 손잡이는 불로 달군 후 두드리면 깨져서 적당히 바스러진 채로 남겨 두었다. 겉으로는 재료의 특성과 물성을 알 수 없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버려진 난로 보호망이나 철망에 광고용 전단지를 이용하여 실을 엮어 늘어트리고 그 끝에 오브제들을 매달아 설치하였다.

This work is done by tapping the iron objects collected until they become thin. Hairpins, buttons, nails, wires, zipper handles, clothing pins, document pins, lighter iron accessories, and other tools are heated over a fire and tapped with a hammer. The tip of an aluminum can was tapped to spread without heating it after finding out it melts away without a trace in the fire, and the zipper handle, which was cast of iron, was heated with fire and broken when tapped, was left partially crushed. The material's properties were not shown on the outside, so the artist went through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It was installed by weaving threads into discarded stove protection or steel nets with advertising flyers and hanging objects at the ends.



어머니로부터 받은 한복으로 작업한 것이다. 이 작업 이전 면티와 스웨터, 군복을 해체하여 재설치한 작업이 선행했다. 해진 옷을 풀어 작업을 매달 용도의 실을 얻으려 시작했지만, 실을 풀면서 변형되는 형태에 주목하여 이러한 작업으로 나아갔다. 각종 옷의 직조 방식에 따라 실을 완전히 풀고, 낚싯줄을 이용해 천장이나 벽면에 원래 옷의 형상을 따라 재설치했다. 〈바래다-오래된 한복을 전해 받다〉는 한복의 모든 실을 분해한 것이 아니라 씨줄과 날줄 중 하나의 줄만 제거하여 원래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했다. 저고리와 치마를 천장에 매달아 설치하고, 빼낸 실을 모아 나무 좌대에 걸어두었다.

The artist worked with the hanbok that was handed down from his mother. Before this work, he created works disassembling cotton shirts, sweaters, and military uniforms and reinstalled them. He started unwinding the worn clothes to obtain thread to hang works, but he proceeded with this work by paying attention to the shape that was transformed by unwinding the thread. According to the weaving method of various clothes, the thread was unwound entirely, and it was reinstalled on the ceiling or wall using fishing thread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original clothes. “Fade-receiving an old hanbok” was not a work that disassembled all the threads of the hanbok but removed only one of the weft and blade lines to keep the original shape from collapsing. A Jeogori and a skirt were hung from the ceiling, and the removed thread was collected and hung on a wooden stand.

세 개의 기둥 2009 신문지 5(h)×40×20cm
Three pillars 2009 Newspaper 5(h)×40×20cm



네 명의 작가가 릴레이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했던 《Coding conversation》(2009) 출품작이다. 작가는 전시의 출발을 맡게 되어 재료를 찾기 위해 전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정육점에서 내놓은 신문을 발견하고, 이를 재료로 작업한다. 신문을 접어보고, 펼쳐보고 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구겨서 산처럼 쌓아 설치한다. 한편 한 신문에서 우연히 떨어졌을 세 개의 붉은 김치 국물 자국을 발견하고, 그 부분만 두고 칼로 활자를 모두 긁어 나온 가루를 세 개의 자국에 쌓아 올려 〈세 개의 기둥〉을 제작한다. 다음 참여 작가는 쌓아둔 신문 뭉치를 산의 형상으로 보고 히말라야 설인을 연상하면서 다시 뭉쳐 눈사람을 만들고, 다음 작가는 그것을 태우고, 그다음 작가가 태운 재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기록한 사진 작업으로 이어졌다.

This is the entry of "Coding Conversation"(2009), which was conducted by four artists in the form of a relay solo exhibition. The artist was in charge of the first series of the exhibition. He goes around the exhibition hall to find materials, finds newspapers from butchers, and works on them. After folding and unfolding the newspaper, he crumpled and installed it like a mountain. Meanwhile, he finds three spots of red Kimchi soup stain that would have accidentally fallen on the newspaper. He builds up the powder that has been scraped out with a knife on the three stains to produce "Three Pillars." The next participating artist saw the stacked crumpled newspaper in the shape of a mountain, imagined Himalayan snowmen, and then regathered it to make a snowman. The next artist burned it, and finally, the last artist took a photograph of letting the ashes flow into the river.

그린하이츠 2011 자개장, 자개, 나무, 나일론실 가변크기
Green heights 2011 Mother-of-pearl, wood, nylon thread Dimension variable



작가는 이사할 곳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로부터 자개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린다. 자개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쪽 구석이 깨져 자개가 걷어지고 흰색 표면이 드러나자 오래된 벽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자개장의 문짝 하나를 테이블로 두고 쓰면서 면도칼로 자개를 하나씩 떼 나간다. 또한 모든 장을 분해하면서 안쪽에 색이 덜 칠해진 부분 등 겉으로 보이지 않던 부분들도 발견한다. 뜯어낸 자개들은 나무 구조물 안에 나일론실로 매달아 설치하고 자개의 뒷면을 전면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분해한 장의 판재들도 감춰진 뒷면이 보이도록 벽면에 일렬로 나열하여 전시하였다. 이 작품은 같은 해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에서의 개인전 《하이츠+주인을 찾습니다》에서 재전시된다. 이 전시를 진행하면서 자개장 장인들과 인터뷰하고, 자개장을 만드는 도구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개장의 융성과 쇠퇴 등도 조사하였다.

The artist looks after a mother-of-pearl closet from his grandfather, who lived where he was going to move in, and waits for an incident to happen. In the process of moving the mother-of-pearl cabinet, one corner is broken. The mother-of-pearl is lifted, and the white surface is revealed, giving the impression of looking at an old mural painting. Taking the incident as an opportunity, the artist removes mother-of-pearl one by one with a razor while using one of the doors as a table. As all the cabinet parts are disassembled, parts that are not visible, such as parts that are less colored inside, are also found. The ripped mother-of-pearl is installed by hanging it with nylon thread in a wooden structure, and he produces work with the back of the mother-of-pearl shown as the front. The disassembled sheet plates were also displayed in a row on the wall so that the hidden back side could be seen. This work is re-exhibited at the solo exhibition “Green Heights+Finding the Owner” at Takeout Drawing Hannam in the same year. While preparing this exhibition, the artist interviewed mother-of-pearl cabinet craftsmen, investigated the prosperity and decay of the mother-of-pearl closet, and understood the tools and manufacturing process for making them.

연기백의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52 Building 106 2011 Abandoned furniture, waste Dimension variable
52동 106호 2011 폐가구, 폐기물 가변크기



동일한 명칭으로 13번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사물을 보는 관념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2008년 처음 시작한 것이다. 주로 작업실이나 전시장 주변 잉여공간에 임시적인 구조물과 대화 나눌 자리를 만들고, 주변 도서관의 책갈피를 통해 만난 이들과 작가가 진열해 놓은 사물을 매개로한 이벤트와 같다. 그 사물들은 작가가 누군가 만들고 남은 버려질 재료를 사포와 수공구를 이용해 최소한으로만 다듬은 것이다. 초기 이벤트는 3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진열된 사물을 선택하는 한 명의 관객, 작가, 상황과 무관한 한 명의 관객이 사물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눈다. 질문과 대화는 즉흥적으로 이뤄지며, 대화가 끝나면 사물을 제자리에 놓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The project, carried out 13 times under the same title, started from an accidental event to observe the difference in the notion of seeing things through dialogue between people and began in 2008. It is like an event that mediates people met through bookmarks from the surrounding library and objects displayed by the artist, creating a place to talk with temporary structures in the surrounding surplus space in the studio or exhibition hall. The objects are made by the artist using sandpaper and hand tools to minimize the expression of the leftover materials to be thrown away. The earliest event is held with 3 participants. An audience who selects objects on display, the artist, and an audience who has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talk through objects. Questions and conversations are made spontaneously, and a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they put the objects in place.



2011년 8월 구서울역사 재개관을 앞두고 복원건축가의 제안으로 복원전시실 영구 설치 작품 제작에 참여한다. 유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샹들리에를 철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역 주변 노숙자들의 공간점유 형태를 연구한 후, 복원전시실 바닥을 긁어서 단면도를 새기고 샹들리에에서 수집한 먼지를 이용해 단면도를 탁본한다. 이곳에서 수거한 샹들리에는 뼈대, 금속 장식, 크리스털을 모두 분해하는 설치작업으로 이어진다. 전시장 바닥에 분해한 금속 재료를 펼쳐 놓고, 전시장 안쪽부터 창문 바깥에 위치한 나뭇가지에 실을 고정하고 해체한 크리스털만 매달아 샹들리에의 외형을 띤 모습으로 재설치한다. 이 작업부터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실천'을 '공간이용방식'으로 의역해서 적용한다.

Ahead of the reopening of the former Seoul Station in August 2011, the artist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permanently installed works in the restoration exhibition room at the suggestion of a restoration architect. The process of demolishing the chandelier,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as a relic, was recorded as a video. In addition, after studying the space form of occupancy by the homeless around Seoul Station, collecting the dust from the chandelier, and casting the floorplan by scraping the floor. The chandelier collected here leads to installation work that disassembles all the frames, metal decorations, and crystals. Spread out the disassembled metal materials on the exhibition hall floor and reinstalled only the dismantled crystal from the chandelier with thread on the branch outside the window led from the inside of the exhibition hall in the original shape of the chandelier. From this work, the artist started to apply Henri Lefebvre's "spatial practice," interpreting it as a "space use method."



인왕산이 보이는 남쪽 창이 있는 방 2013 도배지, 나무 280(h)×360×420cm
A room with the south window that can see the In-Wang Mt. 2013 Wallpaper, wood 280(h)×360×420cm

도배지 관련 작업의 시초가 되는 작업이다. 작가는 집에 비가 새어 도배지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안쪽의 또 다른 도배지를 발견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네 벽면 세 겹의 도배지들을 손으로 모두 뜯어낸 후 머리카락으로 도배지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배지들은 나무막대에 낚싯줄로 매달아 사방으로 설치하고 도배지 층과 창문이나 콘센트가 있던 빈자리를 드러낸다.

This work is the beginning of the work related to wallpaper. The artist starts to work on this after discovering another layer of wallpaper under the outermost one while tearing off the wallpaper due to rain leaking in the house. After tearing off all three layers of wallpaper on the four walls by hand, the artist goes through the process of connecting the wallpaper with hair. The wallpaper is hung from a wooden stick with a fishing thread and installed in all directions, revealing the wallpaper layer and empty space where windows or outlets used to be.



교남 5-11 2014 도배지, 나무 220(h)×200×100cm
Gyonam 5-11 2014 Wallpaper, wood 220(h)×200×100cm

2013년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 시기 철거 중인 교남동의 빈집들을 돌아보다가 한 집의 벽면에 남은 도배지를 수거하여 만든 작업이다. 도배지 안쪽에서 1996년 신문지가 덧대어진 것을 발견하면서 오래된 주택 도배지 안쪽 여러 흔적을 통해 시대를 추측해 볼 단서를 인식한다. 으스러질 듯 바스라질 듯한 조각 조각난 신문지들을 작은 한지로 이어 붙이고, 신문지와 도배지의 레이어가 드러나도록 낚싯줄에 매달아 설치하였다. 한편 교남동 일대에서 벽이나 담장에서 발견한 한 사람의 낙서를 묶어 「작은 거래의 노래」 책자를 제작하고, 훗날 여러 차례 협업하고 교류하게 될 보리스 스타우트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난다. 교남동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우연한 사건〉(2014), 〈Boris로부터 온 편지와 소포〉(2014)로 협업한다.

It is a work made by collecting the remaining wallpaper on the wall of a house while looking around the vacant houses in Gyonam-dong, which were being demolished during the redevelopment of Donuimun New Town in Jongno-gu in 2013. While discovering that newspapers printed in 1996 were glued inside the wallpaper, the artist recognizes clues to guess the times through various traces inside the wallpaper in old houses. The pieces of crumbled and shattered newspapers were connected with small pieces of Korean paper and installed by hanging them on fishing lines to expose the layers of newspapers and wallpaper. Meanwhile, the artist gathered a man's graffiti found on a wall or fence in the Gyonam-dong area to produce a booklet, "Dicker's song," and meets a documentary director named Boris Stout, with whom he will collaborate and interact several times in the future.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in Gyonam-dong, they collaborated on "Complete Accident" and "Folded d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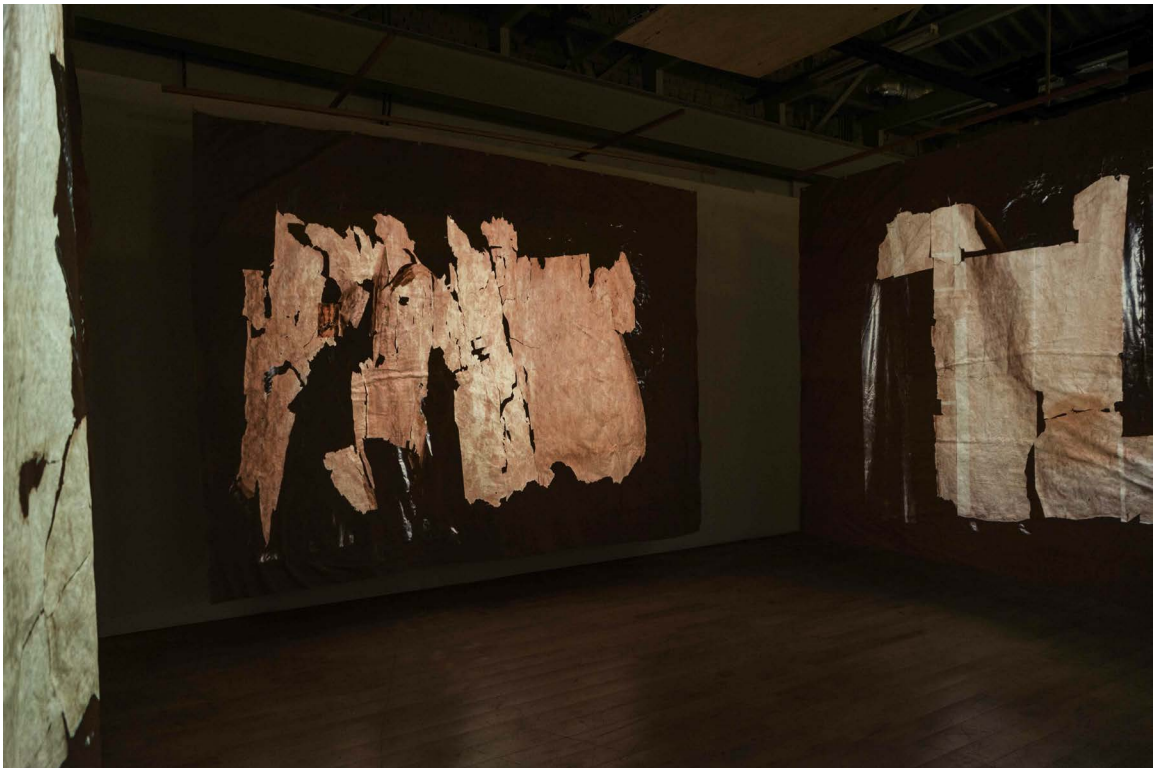


가리봉 133 2014 도배지, 나무 280(h)×1,200×700cm
Garibong 133 2014 Wallpaper, wood 280(h)×1,200×700cm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에 입주하면서 주변 동네와 공장이나 주택 등의 도배 현황을 살피는 일을 한다. 이후 가리봉동에서 오래된 집의 방 하나를 얻어 4개월간 거주하는데, 방의 크기는 3m×3m 정도였다. 그곳은 과거 공장 노동자들이나 조선족이 살았던 쪽방으로 직전 세입자가 세간살이를 두고 몸만 빠져나간 상태였다. 도배지는 13겹의 레이어를 간직하고 있었고, 도배지 사이 사이에서 여공의 시간표, 연예인 사진 등을 수집하고 도배지에 써둔 낙서들도 기록하였다. 손으로 도배지 떼는 것에 한계를 느껴 다른 방법을 고안하던 중 물에 불리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에 수조를 제작해 1년간 도배지 뭉치를 담가두어 완전히 분리한 후 말리는 작업 과정을 거친다. 분리된 도배지 수십 장은 천장에 매달아 관객들이 그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도배지에 남은 흔적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하였다.

While living in the Geumcheon Art Factory Residency located in Geumcheon-gu, Seoul, the artis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wallpaper in surrounding neighborhoods, factories, and houses. Afterward, he got a room in an old house in Garibong-dong, which the size of the room was about 3m×3min, and lived for 4 months. It was a dosshouse where factory workers and Korean Chinese lived in the past, and the previous tenant had left the household behind. The wallpaper had 13 layers, and he found and collected them to record the timetable of female workers, photos of celebrities, and graffiti written on the wallpaper. He gets tired of taking off the wallpaper by hand and devising another method. He finds a way to soak the wallpaper in water. Therefore, he makes a tank and soaks a bundle of wallpaper in it for one year, then separates them completely and dries them. Dozens of separate wallpapers were hung from the ceiling so that the audience could see the traces left on the wallpaper as they passed by between them.

연기백의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Lonely, lonely wanderer 2014 Wallpaper, vinyl Dimension variable
독고○객 2014 도배지, 비닐 가변크기

서울 금천구의 레지던시 입주 후 6개월 가량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작업실 주변 지역을 답사하면서 40가구가 살았던 3층의 폐쇄된 건물을 발견한다. 작은 방으로 쪼개진 집들은 '쪽방'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방의 구조에 흥미를 느껴 사진기를 들고 들어가서 찢기거나 곰팡이 핀 도배지에서 사진이나 낙서 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건물이 철거된 후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개조가 덜 된 낡은 방을 임대해 넉 달에 걸쳐 그 집의 물리적인 결을 관찰하면서 도배지에 남은 낙서와 흔적을 수거, 기록한다. 한편 동네의 지업사를 찾아 도배와 연결된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를 불러 좌담회도 진행하였다.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for about six months after moving into the artist residency at Geumcheon-gu, Seoul. While exploring the area around the studio, the artist finds a closed-down three-story building where 40 households used to live in. The houses were divided into small rooms and were called 'dosshouses.' He was interested in the structure of the room and went in with a camera to observe and record photos of graffiti on ripped or moldy wallpaper. After the building was demolished, he moved to Garibong-dong to find another place. There, he rents a less renovated and old room and, over four months, collects and records the graffiti and traces remaining on the wallpaper, observing the physical texture of the house. Meanwhile, he visits a local paper factory to collect various stories connected to the wallpaper and calls related experts to hold a sit-down meeting.

연기백의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물 이용 방식 세 번째 2015 함석지붕, 물, 빗물받이 가변크기(750(h)×614×396cm 이내 설치)
Water-used method third 2015 Zinc roof, water, rainwater pipe Dimension variable (750(h)×614×396cm)

전시장이 위치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돌아보고 현대식 건물을 관찰하면서 이 장소와는 대조적인 것을 작업 소재로 떠올린다. 작가는 교남동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 외부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눈여겨보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했으며, 개화기 이후 한국식 건물에 빗물받이가 사용된 사례와 하수 시설 등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모티브로 하여 망원동 철거 지역에서 수거한 파이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1층부터 3층 규모의 홀형 전시장에 설치한다. 철거하면서 깨진 상태를 그대로 두어 깨진 틈으로 물이 떨어지거나 물이 모이는 곳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물 이용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맨 위쪽부터 도배지 불린 물을 부으면 아래로 물이 천천히 떨어지며 그 작은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리게 된다. 이 작업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실천' 개념이 '공간이용방식'으로 의미론적으로 적용되었다.

While looking around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where the exhibition hall was located, and observing the modern building, the artist thinks of contrasting things as work material from this place. The artist paid attention to the rain gutter installed outside the house in the redevelopment area in Gyonam-dong and photographed them to record and study cases of rain gutters used in Korean-style buildings and sewage facilities after the Korean Enlightenment period. With this research as a motif, the artist collected pipes from the demolition area in Mangwon-dong and structurally connected them to install them in a ballroom-type three-story exhibition hall. The water-using method was applied, leaving broken parts during demolition as it was so that the place where the water fell through the broken gap or the water gathered could naturally blend. When pouring water used to soak wallpaper from the top, the water slowly falls, and a slight sound rings through the whole space. This work applied Henri Lefebvre's concept of 'spatial practice' semantically to the 'space use method.'

탄,탄,탄 2017 불, 철판, 흙, 나무, 7채널 비디오, 퍼포먼스 가변크기
Tan,Tan,Tan 2017 Fire, steel plate, soil, wood, 7 channel video, performance Dimension variable



〈탄,탄,탄〉은 구 전남도청과 5·18 민주 광장에서 3일간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5·18과 관련한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작가는 여러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과는 거리를 둔 입장을 고민하게 되고, 광주사태 때 공존했던 부랑자, 홍등가 여성, 주먹 쓰던 청년과 주먹밥, 치약, 물을 길에 내주었던 시민의 이야기를 탐독하고, 한편으로 주변의 상인들과 광주의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원초적이지만 여러 의미를 내포한 불을 이용한 설치이자 관객참여형 퍼포먼스이다. 전일빌딩 기둥 전면 55개의 총탄 흔적을 철판에 확대 모사해 불판을 제작하고, 모래를 깔고 나무를 올려 광장 곳곳에 두고 불을 피운다. 시민운동(활동)가, 국가폭력피해자 등 10팀의 발언자를 미리 모집하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발언할 자리를 마련하고, 불 주변에 의자를 설치해 시민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눌 자리를 만들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광주 관련 주제로 제작한 설치미술과 애니메이션을 전시하고, 야외 스크린을 통해 만월(滿月) 영상 이미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드로잉을 상영하였다.

"Tan,Tan,Tan" is a three-day project that took place at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site and the May 18 Democracy Square. When the artist started this work, there was a sharp debate over May 18. The artist thought about a position that was far from the situation where various political positions coexisted and read the stories of a hobo, prostitute woman, young man who is a formal gang member, people who gave out rice balls, toothpaste, and water on the street, and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by having interviews with nearby merchants and young people in Gwangju. The project is primitive, but it is an audience-participating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using fire with many meanings. Enlarging and copying the traces of 55 bullets on the front side of the pillars of the Jeonil Building on an iron plate, and laid sand and wood blocks, and made fires throughout the square. Recruiting 10 teams of speakers, including Civic activists and victims of national violence in advance, prepared a place to speak about their situation and position and set up chairs around the fire to make a place for people to gather and talk. Chosun University Art College students exhibited installation art and animation on the subject of Gwangju. Also, they screened a video of "Full-moon" and drawings of victims of the Hyeongje Welfare Facility on an outdoor screen.



메워진 선 2017 버려진 오브제, 옷, 일기장, 신발, 머리카락 외 가변크기 (700(h)×1,000×1,000cm 이내 설치)
Reclaimed line 2017 Abandoned object, clothes, shoes, dairy, hair,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울산의 한 대학에서 몇 년간 지도했던 미술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현재 삶에 대한 기록물을 태화강변에 구조물과 함께 설치한 작업이다. 작가는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이 하는 일과 연결된 물건과 메모 등을 받는다. 태화강변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조립하여 집 형태 구조물을 만들어 내부에 수집한 메모를 전시하고, 구조물 주변으로 패킹한 물건들을 매달아두었다. 이 작업은 산업도시로 급성장한 울산의 이면을 학생들의 현재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작품명에는 울퉁불퉁한 해안을 매립하면서 확장한 울산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This is the work of installing records of current life after graduation of art college students whom the artist taught at a university in Ulsan for several years with a structure along the Taehwa River. The artist receives items and memos from students related to what they are doing currently. He assembled waste collected along the Taehwa River to make a house-shaped structure, displayed the collected memos inside, and hung the items packed around the structure. This work was to examine the backside of Ulsan, which has rapidly grown into an industrial city, through the current lives of students. The title of the work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Ulsan, which expanded by reclaiming the rugged coast.



신화로 이끄는 자(협업:신호현) 2017 혼합재료 가변크기(230(h)×310×330cm 이내 설치)
A Ruler drawing to mythology(co-work: Ho-hyun Shin) 2017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230(h)×310×330cm)

도배지 관련 작업을 지속하면서 물질적, 물리적 도배지를 넘어 도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연결된다. 도배 명장, 복원건축가, 도배사와 협업하여 세 건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신호현 도배 명장은 직접 만든 수십 종의 도배 도구를 전시하고 수집한 도배 관련 기록물은 아카이브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장순용 복원건축가가 창경궁 수리 과정에서 수집한 도배지, 그와 연결된 자료, 회고록 등도 전시 형태로 꾸려졌다. 도배사이자 시인으로 등단한 강병길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를 모은 사전 형식의 실험 시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런 형식의 시를 도배지에 적어서 오리고, 잘려나간 글자를 모아 바닥에 쌓아두었다. 작가는 협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을 끌어내고, 그것들이 전시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제작하였다.

While continuing to work on wallpaper, the artist naturally becomes connected to people who do things related to wallpaper beyond wallpaper as physical material. Three installations were made in collaboration with a master of wallpaper, a restoration architect, and a paper hanger. Ho-hyun Shin, a master of wallpaper, exhibited dozens of kinds of wallpaper tools he made himself, along with collected records related to wallpaper in the form of archives. The wallpaper collected by Soon-yong Jang, a restoration architect, and related materials and memoirs were also organized as an exhibition. Byeong-Gil Kang, a paperhanger and poet, designed an experimental poem in the form of a dictionary that collected words that he wanted to disappear from the world. He wrote the poem on the wallpaper, cut off letters, and stacked them on the floor. The artist drew out the contents of the collaborators and created several devices to make them appear in the form of an exhibition.



숨 2017 수증기, 유리에 방수액 250(h)×450×230cm
Breath 2017 Steam, waterproof agent on glass 250(h)×450×230cm

작가는 시대가 다른 다양한 도배지를 접하면서 도배지의 문양이나 질감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이 작업은 도배지 문양 중 많이 사용되던 무늬를 선택해 온실 사방 유리에 무늬 패턴을 발수액으로 옮긴 것이다. 내부에서 도배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끓이면 수증기에 의해 보이지 않던 도배지 무늬가 드러나는 설치작업이다. 비 오거나 습한 날에는 문양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The artist is also interested in the patterns and textures of the wallpaper as he encounters various wallpaper from different times. This work is created by transferring a selected pattern widely used among the wallpaper patterns onto the glass in all directions of the greenhouse using the water-repellent solution. When the liquid made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wallpaper is boiled inside, the pattern of the wallpaper that was not visible is revealed by water vapor. On rainy or humid days, the pattern appears more clearly.



사라진 'ㅇ'씨의 일기 2018 흙 다짐, 나무, 인쇄물, 오브제 350(h)×400×360cm
A missing dairy of Mr.'O' 2018 Soil compaction, wood, printed paper, found object 350(h)×400×360cm

작가는 백여 년간 농업교육을 지속해 온 '서둔동 103'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하여 쌀을 매개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1960년대 농대에 진학한 'ㅇ'라는 인물을 상정하며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쌀의 생산과 소비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는 영상이나 여러 기록 등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대 농대 건물에 버려진 기둥을 활용하여 집과 같은 구조물을 세우고, 강제욱, 양희아, 이상윤, 최형욱 작가들이 각자의 작업 세계로부터 일상, 지역, 공동체 등을 주제로 〈네 개의 기둥과의 마주함〉을 전시한다. 작가들은 장소를 매개로 일시적으로 구축된 공간과 함께 공동체의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The artist plans and proceeds with this project with rice as the media, focusing on the locationality of 'Seodun-dong 103,' which has been a source of agricultural education for over a hundred years. The story of a fictional person named 'ㅇ' who entered the agricultural college in the 1960s, investigat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r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era, is shown in a video work and various records. Along with this, a house-like structure is built using abandoned pillars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gricultural College building, and artists Jeauk Kang, Hee-ah Yang, Sang-yoon Lee, Choi Hyung-wook exhibit "Facing the Four Pillars" under the theme of daily life, region, and community from their worlds of artwork. The artists experimented with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ty along with temporarily built spaces through the place as media.



온고잉 프로젝트 옥인 34 2018 문양, 수증기, 수집된 나무문, 비닐과 유리에 발수액 210(h)×80×80cm
Ongoing project 34 Okin 2018 Pattern, steam, found wooden door, waterproof agent on plastic and glass 210(h)×80×80cm

서울 종로구 누하동 일대에서 진행된 전시에서 통인동의 한옥에서 진행한 작업이다. 당시 이 지역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분란이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 나타났기에 이런 현상을 저변에 두고 작업한다. 설치는 한옥 구조를 관찰하고 그곳의 도배지를 수거해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한옥의 기와, 문, 벽, 담 등의 문양을 수집한 후 떼 낸 나무문 유리에 발수액을 발라 수증기에 의해 문양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 작업은 세 개의 문을 삼각형의 구조물 형태로 세워 일시적인 조각으로도 기능한다. 한편 전시 주제 중 하나였던 한글을 키워드로 영상 〈슈슈슉콸콸〉(2018)을 제작하였다. 동네의 주변화된 소리를 채집하고,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문자로 그 소리를 바꾸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이 이를 낭독하게 한 작업이다.

This work was carried out at a Hanok in Tongin-dong among exhibitions held around Nuha-dong, Jongno-gu, Seoul. At that time,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enants and building owners due to rising rents in the neighborhood, and such incidents appeared everywhere, so he worked with this phenomenon in the base. The installation was carried out by observing the structure of the Hanok and collecting the wallpaper there. In addition, after collecting patterns from things such as roof tiles, doors, walls inside the houses, and walls outside the Hanok, water repellent was applied to the removed wooden door glass to reveal the pattern by water vapor. This work also becomes a temporary sculpture by posting three doors as a triangular structure. Meanwhile, a video, “Shu Shu Shuok Quall…,” was made using Hangul as the keyword, one of the exhibition topics. It is the work made of collecting surrounding sounds in the neighborhood, having children learning Korean for the first time change the sound with their knowledge of characters, and having foreigners learning Korean read them.



온고잉 프로젝트 주례 산 18 2018 수증기, 비닐 위에 발수액, 단채널 비디오(21′ 16″) 가변크기
Ongoing Project 18 Jurye Mt. 2018 Steam, waterproof agent on plastic, single channel video(21′ 16″) Dimension variable

작가는 〈탄,탄,탄〉 프로젝트에서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사연에 무게감과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고, 부산에서의 전시 참여를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부산 진구 주례동의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 터만 남은 현장을 살피고, 복지원 사람들이 노동으로 쌓아 올린 옹벽을 비닐에 본뜬 후 발수액으로 그 흔적들을 그렸다. 전시에서는 나무로 세워진 벽구조물에 한 면의 합판을 없애고 비닐을 붙여 내부에서 물을 끓여 옹벽 자국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옹벽을 본뜬 과정을 기록한 영상도 남겼다.

The artist had a sense of weight about the story of the victims of the Brotherhood Welfare Center he met in the “Tan,Tan,Tan” project, and he proceeded with this project when h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in Busan. He visited the site of the Brother Welfare Center in Jurye-dong, Jin-gu, Busan, inspected the remaining site, molded the retaining wall built by the people of the welfare center on vinyl, and drew the traces with the water-repellent solution. In the exhibition, he removed one side of the plywood from the wooden wall structure, attached vinyl, and boiled water inside to reveal the traces of the retaining wall. He also recorded a video of the molding process after the retaining wall.

낭만에 대하여 2019 나무, 떼어낸 창문과 유리 외 남겨진 사물들 가변크기
About romantic 2019 Wood, detached doors and windows Dimension variable



이 작업은 작가의 작업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전시의 키워드 중 하나인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다. 작가는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을 '개인'의 공간이자 '이념'의 공간이라 상정하여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장치인 창문과 유리, 철제 등 떼어냈다. 유리는 천장에 제작한 이동장치를 따라 다른 입구를 막는 기능을 하게 하고, 창문들은 새로운 조각 구조물로 전환된다. 모든 과정을 기록한 영상에는 공간의 결을 살피면서도 공간의 변환을 유도하고자 했던 작가의 예리한 의지와 몸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편 유리가 제거된 통로와 창문이 사라진 문은 내외부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를 얻게 되고, 사회적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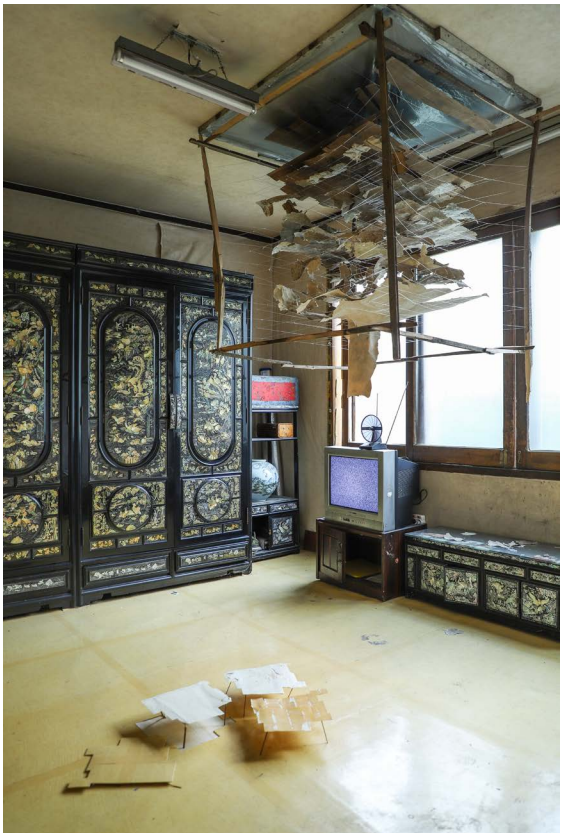
This work was produced under one of the keywords of the exhibition, society, in mind while maintaining the artist's working attitude. The artist assumes that the space where the exhibition takes place is a space of 'subject' and a space of 'ideology'. He removed windows, glass, and iron, which are devices that separate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e glass functions to block other entrances along the moving device made on the ceiling, and the windows are converted into new sculptural structures. The video recording of the entire process reflects the artist's keen will and body movement to induce the transformation of the space while examining the image of the space. On the other hand, the passage from which the glass was removed and the door where the window disappeared gained the meaning of connec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the space becomes a place to talk and discuss with a person interested in social art.



온고잉 프로젝트 청담 92-9-5.544 평방미터 2021 도배지, 흑연, 전구, 벽지에 흑연, 수집된 합판에 흑연 300(h)×330×280cm
Ongoing project 92-9 Chungdam-5.544 Square Meter 2021 Wallpaper, graphite, wood, thread, incandescent lamp 300(h)×330×280cm

1960~70년대 연탄회사로 성장한 회사의 개관전 참여를 계기로 건립 공사가 진행될 때부터 그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철거 전 사옥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탕비실에서 떼어낸 도배지는 예전 탕비실 위치를 실측한 비슷한 자리에서 과거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이용되었고, 신축 시 사용했던 외벽 합판을 이용하여 목구조를 제작하고 그 공간의 입구를 막도록 설치했다. 목구조 전면에는 흑연으로 광부들의 탄광시를 옮겨 적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신축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는 사물들과 흙들을 수집하는 일도 병행하였다.

By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exhibition of a company that grew into the mining industry in the 1960s and 1970s, he had the chance to observe and recor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new building from the start. The used wallpaper removed from the break room before its demolition was reused to reconstruct what the room was like at a location similar to the surveyed original, and the exterior plywood from the new construction was used to build a wooden structure and placed to block the entrance of the space. On the facade of the wooden structure, poems by miners transcribed in graphite collected from the groun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Meanwhile, he also collected objects and soil from the excavation during the new construction.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역촌동의 한 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에 남은 한 세대의 자취를 마주하고, 주택 건물 내외부에 남은 물리적 흔적을 관찰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결혼 후 남편을 잃고 자식과 반평생을 살다 이 집을 떠난 할머니가 남긴 가구, 생활 도구와 수집품 등 세간살이와 할아버지와 연관된 유품, 일기 등을 살피는 일을 한다. 한편 오래되고 낡은 건물 상태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작가는 조형적 태도를 발현한다. 2층 안방 누수로 쳐진 천장 부분의 도배지를 떼어내 나무와 낚싯줄을 이용해 도배지 층이 보이도록 설치하고, 주방 바닥 3겹의 장판을 들어내 바닥 균열과 장판에 남은 생활 흔적을 보이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화장실 벽에 남은 사람들의 흔적에 반응하고, 건물의 노후로 발행한 균열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 집안 곳곳의 손잡이 문양을 흙으로 본뜨는 작업 등도 진행하였다.

From 2018 to 2021, he rented a house at 40-13 Yeokchon-dong to face the traces of one household that used to live in the house and observe and change the physical traces left behind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He examines furniture, household tools, and collections left by an old lady who used to live there for half of her life after losing her husband shortly after marriage and no longer living there, as well as diaries and keepsakes from her husband. The artist also shows a formative attitude in the process of solving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old and worn building conditions. He removed wallpaper on the ceiling section of the main room on the second floor and installed it so that the wallpaper layer could be seen using trees and fishing lines and lifted the three-layer floorboards on the kitchen floor to show cracks on the floor and traces of life on the floor. In addition, he responded to the traces of people left on the bathroom wall, examined the traces of cracks issued by the old age of the building, and modeled the handle patterns throughout the house with soil.



온고잉 프로젝트 역촌 40-칠점삼칠미터의 떨림_낭독 한 줄 퍼포먼스 낚시줄, 스피커, 마이크 외 20′ 20″
Ongoing project 40 Yeokchon-motion of 7.37 meter_reading >< one line performance Fishing line, speaker, microphone 20′ 20″

역촌 40에서 작가는 공간의 매개자를 자처하며 목수 겸 미술가, 소설가, 도배사, 연출가, 다큐멘터리 감독, 무속인, 독립영화감독과 1:1로 대면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대면을 통한 침묵, 낯섦, 어색함, 관계와 저항, 마주하기와 회피하기, 동의와 어긋나기의 운동을 겪으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이후 참여자를 초대해 퍼포먼스 〈칠점삼칠미터의 떨림〉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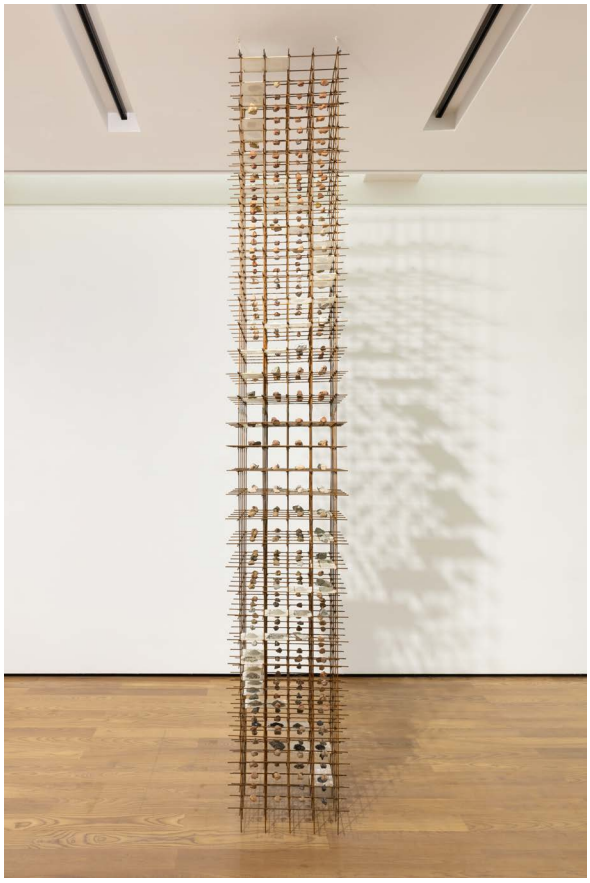
At 40 Yeokchon, the artist claims to be the mediator of the space and works 1:1 face-to-face with carpenters and artists, novelists, paperhangers, directors, documentary directors, shamans, and independent film directors. Through face-to-face silence, unfamiliarity, awkwardness, relationships and resistance, confrontation and avoidance, and movement against consent, the artist experiences complex interactions in tasks involving people. After that, he invited participants and performed “Motion of 7.37 meter”.



영국 런던에서 처치스트릿과 블랙워터 하우스(Church St. & Blackwater house)를 살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60년대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노동자들을 위해 건축된 주상복합 임대 아파트 블랙워터는 재개발을 앞두고 이주가 이루어지던 장소였다. 작가는 3개월 동안 그곳의 문화와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주와 짓기의 관점을 목격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블랙워터와 비워진 공간에서 사물들을 수집하고, 주어진 것들로 임시 작업실과 거처 할 상황을 만들어 기생하는 작업 과정을 거친다. 전시는 작업이 이뤄지던 장소와는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교남동에서 수집한 도배지, 보리스의 교남동 재개발 사진, 서울의 소설가와 작가가 런던에서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채팅하던 이미지를 상영하였으며, 그곳에서 수집한 사물을 이용한 설치와 그곳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작업을 상영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을 낯설게 제시하였다.

In London, England, the artist conducts a project to observe Church Street and Blackwater House. Blackwater, a residential-commercial rental apartment built for laborers in the Westminster area in the 1960s, was where migration took place ahead of redevelopment. For three months, the artist experiences its culture and community, witnesses the perspective of migration and construction, and observes and records the actions that occur within the place. He collects objects from Blackwater and empty spaces and goes through the process of parasitizing temporary workshops and living conditions with the given things. The exhibition took place away from where the work was carried out. He screened the images of online chatting with people for exchanging wallpaper collected in Gyonam-dong, photos of Boris's redevelopment in Gyonam-dong, and photos that a novelist in Seoul took, and the video work filmed on the street and installed using the objects collected there to present different cultures unfamiliarly.

( )의 땅 2023 흙, 돌, 테라코타, 철 외 320(h)×40×40cm
Land of ( ) 2023 Soil, stone, terracotta, steel 320(h)×40×40cm



근대를 앉음과 일어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능동과 수동, 하강과 상승의 운동에 주목한 작업 중 하나이다. 인류가 흙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흙을 굽고 정제하던 과학적 시간과 수만 년 퇴적된 흙의 시간을 병치함으로써 근대 인류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광산업을 시작으로 성장한 회사의 신축 사옥 건립 중 초기 터파기 과정에 개입하여 50cm 깊이 간격으로 흙을 모았다. 그 흙들을 절구로 빻아 곱게 갈아 점토를 만들고 다른 온도에서 열한 번 구웠다. 층별로 수집한 원래의 돌과 흙, 절구로 빻은 흙, 손으로 뭉친 흙, 불에 구운 흙, 빈칸까지 총 16개의 변화된 흙을 수평으로 배열하고 32개의 층을 수직으로 설치했다.

This work focuses on the movement of active and passive, descent and ascension through the keywords of sitting and standing up in modern times. It is to rethink the time of modern humans by juxtaposing the scientific time of baking and refining soil to use it as a tool and the time of tens of thousands of years of deposited soil. The artist could get into the initial excavation process of a company's new building, which had grown from the mining industry, and collect soil at 50 cm deep intervals. He ground soil with a mortar to make clay and baked it eleven times at different temperatures. A total of 16 types of soil, including the original stone and soil, ground soil by mortar, hand-pulled soil, baked soil, and blanks, were arranged horizontally and installed vertically in 32 layers.

대지 속으로 2023 수집된 사물, 흙 340(h)×450×500cm
Put in earth 2023 Found object, soil 340(h)×450×500cm



긴 기간에 걸쳐 수집했던 사물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으로, 타 문화권의 이주와 철거 현장에서 목격한 익숙한 물건들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구 서울역사의 샹들리에, 재개발로 철거될 강남아파트 거주자로부터 받은 자개장, 역촌동 주택에서 수집한 서랍장과 기와, 흙, 런던 철거 예정 노동자임대주택에서 수집한 커튼과 물건 등이 설치물로 사용되었다. 수집한 장소와 그것들이 제작된 시대는 다르지만 대부분 근대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다. 작가는 근대 이후 경제적 세계화를 거치면서 생활 속 물건들이 상품이 된 현실에서 버려지고 주변화된 물건들을 발굴하고 흙과 흙물로 훼손함으로써 근대적 시공간의 모순을 사물들이 처한 운명처럼 표현해낸다.

It is a work of asking questions about time and space through objects collec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started with the curiosity of familiar objects the artist found at the sites of migration and demolition in other cultures. The chandelier of former Seoul Station, the mother-of-pearl cabinet received from the residents of Gangnam Apartment to be demolished through redevelopment, drawers, tiles, and soil collected from Yeokchon-dong houses, and curtains and objects collected from the workers' rental housing scheduled to be demolished in London were used for the installation. Although the place collected and the era in which they were produced differ, most were made after modern times. The artist expresses the contradiction of modern time and space, like the fate of objects, by excavating and damaging objects discarded and marginalized in the reality that objects have become commodities through economic globalization since modern times.

두 개의 구축 2023 나무 반닫이 65(h)×85×65cm
Two constructions 2023 Bandaji(Wooden chest) 65(h)×85×65cm



지난 10년간 여러 사연으로 버려질 목가구를 전해 받고 수집하여 이들을 조각의 재료로 삼은 작업이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반닫이함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빼앗겼다가 무겁다는 이유로 길에 버려져 되찾아 온 사연이 있고, 개화기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많았던 교남동 철거 지역의 비밀서랍장과 개화기에 사용했을 교회 의자, 학교 의자 등 나무로 제작된 가구와 도구들은 수집된 것들이다. 작가는 목가구들을 반복하여 불로 태우고 솔질하고, 떨어져 나온 가루를 모은다. 태우는 과정에서는 장인들의 축적된 솜씨와 사용했던 이들의 시간, 변화무쌍한 나무의 결을 마주하는 과정을 겪는다. 낚싯줄을 이용해 좌대에 세우거나 추상 조각가의 조각 전시를 위해 제작된 좌대 위에 배열하였고, 바닥에 쌓아 설치했다. 태우는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타서 없어져 생긴 공간이나 구조가 틀어져 생긴 틈을 태운 가루로 메우도록 설치했다.

This work uses collected or inherited wood furniture with various stories that were going to be discarded over the past 10 years as materials for sculptures. The Bandaji(Wooden chest)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house was lost to the communist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was discarded because it was heavy and found again on the road. The artist found and collected the secret drawers from the demolition area in Gyonam-dong, which had a lot of land owned by foreigner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wooden furniture, including church chairs and school chairs used during the Korean Enlightenment period. The artist repeatedly burns and brushes the wood furniture and collects the powder that has fallen off. In the process of burning, the artist faces the accumulated skills of the craftsmen, the time they used, and the ever-changing wood texture. It was placed on a pedestal using a fishing line or on a pedestal made for the exhibition of an abstract sculptor or stacked to be installed on the floor. The space created by the weak part burned down in the process of burning, and the gap caused by the twisted structure was installed to be filled with burned powder.



당김과 밈 2023 한옥목재, 정제목재, 와이어, 낚시줄, 수집된 벽지 357(h)×500×500cm
Pulling and pushing 2023 Traditional wood, refined wood, wire, fishing line, wallpaper 357(h)×500×500cm

근대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조각에서 중력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는 반중력의 사유를 추구했던 시기이다. 한 수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력에 영향받지 않는 텐세그리티 구조가 서구 근대조각에도 등장한다. 당겨짐과 밈에 대한 조각적 연구는 중심과 의지를 향한 근대인의 사유에 대한 질문과도 같다. 작가는 서울시에서 철거한 한옥 목재를 구해 결구 흔적을 유추하고 그 결을 따라 조립하고, 부서진 곳은 정제된 목제와 와이어를 이용해 텐세그리티 구조로 결합하여 전체 구조를 세웠다. 좌익으로 분류된 여성 문인의 다락방에서 초배지로 사용한 1946년 신문, 일제강점기 전기회사 대표의 주택, 누상동, 서촌의 한옥, 인왕산 자락에 방치된 한옥 등에서 수집한 도배지의 겹들을 분리하여 구조물에 낚싯줄로 매달아 설치하였다.

The artist's interest in modern time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gravity in sculpture. Modern times were a time when anti-gravity theory was pursued to overcome nature. Based on the research of a mathematician, the Tensegrity structure, which is not affected by gravity, appears even in Western modern sculptures. The sculptural study of being pulled and pushing is like a question of modern people's thoughts toward the core and will. The artist found wood from the hanok demo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ferred the traces of the structure, assembled them according to the texture, and combined the broken part with the tensegrity structure using refined wood and wires to build the entire structure. Wallpaper collected from various places, including the newspaper from 1946 that was used as lining paper collected from the attic of a female writer classified as left-wing, and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 of Japanese colonial era Electric Company, Nusang-dong, Hanok in Seochon, and abandoned Hanok at the footof Inwangsan Mountain were separated and installed with fishing lines on the structure.

작가이력

CV

학력	200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7.7.31~8.7	'遲遲' 더딤과 기다림 (관훈갤러리, 서울)
	2008.8.27~9.2	'바래다,漂,Fade' (관훈갤러리, 서울)
	2009.4.19~4.30	52동 106호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2009.8.16~8.25	Coding conversation '세 개의 기둥' (스페이스 집, 서울)
	2011.2.24~3.13	Green heights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2011.3.14~5.20	Green heights+주인을 찾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 서울)
	2013.8.10~9.1	농축된 史 (자하미술관, 서울)
	2014.12.18~2015.1.8	곳 다가서기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10.6~11.28	곁집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7.2~7.24	'?'-그 누구 (서학동사진관, 전주)
	2017.10.10~11.5	마주하는 막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9.7.15~8.15	일시적 식탁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1.2.23~3.24	백오십점일평방미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3.9.8~11.5	오늘의 작가-앉음과 일어섬의 때(象)에 대하여 (김종영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기획)	2001.4.2~4.21	project space Atmosphere 2人展 (project space Atmosphere, 서울)
	2003.3.1	삼일절 종로거리재현행사-역사를 넘어서-'신(新) 독립선언' (종로YMCA앞 도로, 서울)
	2008	52동 106호-첫 번째 (서울대학교 52동 106호 실습장 內 조교실, 서울)
	2009.4.19~4.30	52동 106호-두 번째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2009	52동 106호-세 번째 (서울대학교 51동 복도, 서울)
	2009	52동 106호-네 번째 (서울대학교 52동 106호 실습장 內 조교실, 서울)
	2010	52동 106호-다섯 번째 (동소문로 1가 6번지 옥상, 서울)
	2011.2.24~3.13	52동 106호-여섯 번째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2011.3.14~5.20	52동 106호-일곱 번째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 서울)
	2012.3.1~2013.11.30	52동 106호-여덟 번째 (울산대학교 박물관 內 중정(中庭) 및 교수연구동, 울산)
	2014.5.1~2015.8.30	52동 106호-아홉 번째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10.6~11.28	52동 106호-열 번째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3.1~2017.2.28	52동 106호-열 한 번째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7.6.2~6.4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탄,탄,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광주)
	2018.5.18~5.27	쌀의 독백: 일시적 식구 (경기상상캠퍼스((구)서울대 농대), 수원)
	2018~2021	온고잉 프로젝트 역촌 40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0	52동 106호-열 두 번째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2	온고잉 프로젝트: Facing Church st.&Gyonam (런던, 영국)
단체전	2002.10.5~11.2	야생동물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종의 생명체 (토탈 장흥 야외미술관)
	2005.3.29~4.18	GIAF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발 '빛, 사람, 문'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5.5.4~5.31	야생동물들: 서울나들이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6.6.7~6.13	EHS project- human, seoul, emotion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6.8.12~8.26	아시아현대미술제 '무지개 너머' (성산아트 홀, 창원)
	2006.8.18~9.7	야생동물들: 수원가(歌) (대안공간 눈, 수원)
	2006.10.28~11.25	야생동물들: 중랑천 프로젝트-버들치를 기다리며 (중랑천, 서울)
	2006	The First WHITE SALE-Love for children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7.4.27~5.10	愚問賢答展 (쿤스트 독, 서울)
	2007.9.28~10.20	Hard&Soft (우덕갤러리, 서울)
	2007.10.1~10.31	2nd 포천아시아비엔날레-특별전 (포천광역버스터미널, 포천)
	2007.10.17~11.3	야생동물들: 그들이 도심에 나타나다 (서울문화재단 전시실, 서울)
	2007.10.26~11.10	About&Around (문화공간 도배박사, 서울)
	2008.7.2~8.1	쉼표 (대안공간 충정각, 서울)
	2008.8.13~8.26	지각과 충동 (관훈갤러리, 서울)
	2008.8.26~9.25	서울조각회전 (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2008.9.8~9.14	이방인의 빈방Ⅱ-무엇에 관한 장소 (허치슨 갤러리, 뉴욕)
2008.9.10~9.27	야생동물들: 청계천 다리 밑에서 (청계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2009.2.13~3.7	이유미_연기백_신년식展 (가회동 60)
2009.5.1~6.27	인간과 자연-치유 治癒 (포천 아트밸리, 포천)
2009.5.7~6.30	일상의 기호 (스페이스 홀 앤 코너, 서울)
2009.8.16~9.30	Coding conversation (스페이스 집 갤러리, 서울)
2009.9.10~10.24	야생동물들: 도라산에서 만나다 (도라산 평화공원, 서울)
2010.10.2~10.31	3nd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오동 팀: 주민 되기 (안양5동 일대, 안양)
2011.5.6~6.19	Haiku Sculpture 2011 (대만대학, 대만)
2011.8.12~8.18	썸머 드로잉 페스티벌 (쿤스트 독 갤러리, 서울)
2011.8.31~9.6	2011 서울조각회 빌라다르와 예술가들 (토포하우스, 서울)
2011.10.11~10.20	신호보내기-국제교류전 (Art space UOU, 울산)
2012.9.12~9.18	한국미술 소통의 흐름을 위한 '미술대학 교수 교류전' (공평갤러리, 서울)
2012.9.20~9.24	수목원가는길 2012 문화마당 초대전 (경희궁미술관, 포천)
2013.5.20~6.8	서울조각회 34회 정기전-조각, 광복에서 오늘까지 (독립기념관, 천안)
2013.12.30~2014.2.2	White&Black or Right&Wrong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2014.4.5~5.4	도원에서 노니다 (자하미술관)
2014.5.29~6.18	모르는 자에 대한 우정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4.6.27~9.28	또 다른 만남 양구백자 조각 (양구백자박물관, 양구)
2014.10.10~10.23	잡화점 (보안여관, 서울)
2014.11.20~12.10	결을 거슬러 도시를 솔질하기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3.18~6.5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5.3.2~3.6	On the Edge of Fusion (MIST Harlem, 뉴욕)
2015.5.6~5.31	어느 지시성 (자하미술관, 서울)
2015.6.11~6.30	우글거리는 미로들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2015.6.12~8.16	조우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10.30~2016.2.14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5.11.4~11.10	On The Way to Red (북경복장학원, 북경)
2016.5.31~6.12	인트로 (국립현대미술관고양레지던시, 고양)
2016.6.16~7.5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6.6.24~8.6	말 없는 미술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6.8.19~2017.3.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년 특별전-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10.7~11.6	성북도큐멘타 3: 안감내 한옥 이야기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2016.11.2~11.6	대구아트스퀘어-2016 청년미술프로젝트 (엑스코, 대구)
2017.4.7~5.31	잔의 깊음-남겨진 것의 장엄 (예술공간 수애뇨339, 서울)
2017.6.1~6.11	천변만화-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생태공원, 울산)
2017.6.2~6.4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광주)
2017.11.18~1.18	어느 조각 (정문규미술관, 안산)
2017.11.23~12.10	도시채집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8.9.1~10.21	철인-우리가 쌓아 올린 탑 (F1963, 부산)
2018.10.4~10.7	세계문자심포지아 2018 황금사슬 (옥인동 34-1 외, 서울)
2018.10.9~11.25	뜻밖의 조각 (유리섬 맥아트미술관, 안산)
2019.8.9~8.29	사회적 조각을 위한 방법 연구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9.8.28~10.31	소요하는 사물들 (안상철 미술관, 경기)
2019.12.2~12.14	단단한 불균형 (북구예술창작소, 울산)
2020.1.17~3.15	새벽의 검은 우유 (김종영미술관, 서울)
2020.6.16~10.4	말과 글, 뜻과 몸짓 (이응노의 집, 홍성)
2020.8.1~10.11	기억 전달자 (부천아트벙커, 부천)
2020.8.15~2021.1.31	별이 된 사람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20.9.17~11.1	창원조각비엔날레-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성산아트홀, 창원)
2021.7.6~7.31	42회 서울조각회전 '40×40×40' (김세중미술관, 서울)
2021.8.6~8.26	21세기 기념비-절대적인 것에 대하여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2021.9.30~11.20	Exploring Songeun Art space-Herzog&De Meuron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10.28~11.12	Round-Round-Round (금천문화재단 온라인 전시, 서울)
	2021.10.2~10.10	2021 수원국제예술제-강이 들려주는 이야기 (실험공간 UZ 외, 서울)
	2022.3.5~3.17	나, 너 그리고 우리 (예술공간 아름, 수원)
	2022.6.14.~7.3	은평大소동 (신사옥, 서울)
	2022.7.15~7.24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시작부터 지금 (뉴목련장 외, 울산)
	2022.8.27~9.23	생활:조각 (노마드갤러리, 여수)
	2022.9.28~10.9	2022 수원국제예술 프로젝트 온새미로 (복합문화공간 111CM 외, 수원)
	2022.9.1~9.9	검은 물 (처치스트릿 66번지, 런던, 영국)
	2023.9.26~12.17	극장/Post Media and Site,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선정 및 레지던시	2007	관훈갤러리 기획공모 선정
	2010	소마 드로잉센터 4기 등록작가 선정
	2011	테이크 아웃 드로잉 레지던시
	2013	금천예술공장 5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4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5	송은 아트스페이스 국내작가 개인전 선정
	2016	국립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8	김세중 청년조각상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오픈크레이티브 입주작가
	2020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준비지원 선정
	2022	한국예술위원회 한국국제예술교류지원(시각예술) 선정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시각예술) 선정

Education

2000 Graduated with B.F.A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culpture, Seoul, Korea
2007 Graduated with M.F.A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culpture, Seoul, Korea

---

Solo Exhibitions

2007.7.31~8.7	Slowness & Waiting, Gallery Kwanhoon, Seoul, Korea
2008.8.27~9.2	Fade, Gallery Kwanhoon, Seoul, Korea
2009.4.19~4.30	52-106, Gallery Curiosity, Seoul, Korea
2009.8.16~8.25	Coding Conversation 'Three Pillars' SPACEZIP gallery, Seoul, Korea
2011.2.24~3.13	Green Heights, SOMA Drawing Center, Seoul, Korea
2011.3.14~5.20	Green Heights+Finding the Owner, TakeOut Drawing, Seoul, Korea
2013.8.10~9.1	Enriched History, Zaha Museum, Seoul, Korea
2014.12.18~2015.1.8	Approaching a Place, Seoul Art Space Keumcheon, Seoul, Korea
2015.10.6~11.28	Para-Site, Song-Eun Art space, Seoul, Korea
2016.7.2~7.24	'?'–One who is, Seo-Hak Photo Gallery, Jeonju, Korea
2017.10.10~11.5	Act Facing Act, Amado Art Space, Seoul, Korea
2019.7.15~8.15	Temporary Table, Project Space Yeochon 40, Seoul, Korea
2021.2.23~3.24	Approaching ( ) Site + Facing Effect, Project Space Yeochon 40, Seoul, Korea
2023. 9.8~11.5	About Signs of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

Directed Project

2001.4.2~4.21	project space Atmosphere Two-Person Exhibition, project space Atmosphere, Seoul, Korea
2003.3.1	3·1 Jongno Street Reproduction Event-Beyond History-New Declaration of Independence, Road in front of Jongno YMCA, Seoul, Korea
2008	52 building 106-1st, Teaching Assistant's Roo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No.52 Studio 106, Seoul, Korea
2009	52 building 106-2nd, Corridor in Seoul University 51 Dong University, Seoul, Korea 52 building 106-4th, Teaching Assistant's Roo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No.52 Studio 106, Seoul, Korea
2010	52 building 106-5th, 6, Dongsomun-ro 1(il)-ga, Rooftop, Seoul, Korea
2011.2.24~3.13	52 building 106-6th, SOMA Drawing Center, Seoul, Korea
2011.3.14~5.20	52 building 106-7th, TakeOut Drawing Hannam, Seoul, Korea
2012.3.1~2013.11.30	52 building 106-8th, An interior courtyard in Ulsan Museum and Teaching Center, Ulsan, Korea
2015.5.15~8.30	52 building 106-9th, Seoul Art Space Keumcheon, Seoul, Korea
2015.10.6~11.28	52 building 106-10th, Song-Eun Art space, Seoul, Korea
2016	52 building 106-11th,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oyang, Goyang, Korea
2017.6.2~6.4	ACC Gwangju Fringe International 'Tan,Tan,Tan,' Old Jeollanamdo office yard, Asia Culture Center square, Gwangju, Korea
2018	Monologue of Rice: Temporary mouths to Feed, Gyeonggi Sangsang Campus, Suwon, Korea
2018~2021	On-going Project: 40 Yeokchon-〈150.1 Square Meter〉, Project space Yeochon 40 Seoul, Korea
2020	52 building 106-12th, Project space Yeochon 40, Seoul, Korea
2022	Ongoing Project Facing Church St.&Gyonam, Londond, Seoul, Korea

---

Group Exhibitions

2002.10.5~11.2	Wild Animals: Heterogeneous Species living on Earth, Total Jangheung Outdoor Museum, Jangheung, Korea
2005.3.29~4.18	GIA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Light, People, Doors', Sejong center, Seoul, Korea
2005.5.4~5.31	Wild Animals: Song of Suwon: Seoul Outing, Sejong center, Seoul, Korea
2006.6.7~6.13	human, seoul, emotion, Sejong center, Seoul, Korea

2006.8.12~8.26	Asia Modern Art Festival, Sungsan art center, ChangWon, Korea
2006.8.18~9.7	Wild animals: Song of Suwon, Space noon, Suwon
2006.10.28~11.25	Jungnangcheon Project-Hop for 'Moroco oxycephalus', Jungnangcheon, Seoul, Korea
2006	The First WHITE SALE-Love for children,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07.4.27~5.10	A wise answer to a silly question, Gallery Kunst Doc, Seoul, Korea
2007.9.28~10.20	Hard & Soft, Wooduk Gallery, Seoul, Korea
2007.10.1~10.31	2nd Pocheon Asia Biennale, Pocheon Express Bus Terminal, Pochen, Korea
2007.10.17~11.3	Wild Animals: They show up in the city cent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07.10.26~11.10	About & Around, Culture space Doctor Dobea, Seoul, Korea
2008.7.2~8.1	Coma, Alternative space Chung Jeong Gak, Seoul, Korea
2008.8.13~8.26	Perception & Impulse, Gallery Kwanhoon, Seoul, Korea
2008.8.26~9.25	SEOUL SCULPTORS SOCIETY the 28th Annual Exhibition, Manas art center, Yangpyeong, Korea
2008.9.8~9.14	Empty of the Alien II-About what, The place, Gallery Hutcheson, New York, USA
2008.9.10~9.27	Under the Cheonggye Bridge, Cheong-gye-chun, Seoul, Korea
2009.2.13~3.7	Lee Yu-mee, Sin nyun-sik, Kibaik YUON, GAHOEDONG 60, Seoul, Korea
2009.5.1~6.27	Humans and Nature-Healing, POCHEON ART VALLEY, Pocheon, Korea
2009.5.7~6.30	Daily sign, Space Hole and Coner, Seoul, Korea
2009.8.16~9.30	coding conversation, Gallery space zip, Seoul, Korea
2009.9.10~10.24	At the Peace Park & Dorasan Station, Peace park & Dorasan station, Paju, Korea
2010.10.2~10.31	3nd Anyang public Art Project: Odong team, "Being-Residents", Anyang 5-dong, Korea
2011.5.6~6.19	Haiku Sculpture,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2011.8.12~8.18	Summer Drawing Festival,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2011.8.31~9.6	2011 Seoul Sculptors Society, topohaus, Seoul, Korea
2011.10.11~10.20	Sending signal, Art space UOU, Ulsan, Korea
2012.9.12~9.18	The flow of communication about Korea Art, GongPyeung Gallery, Seoul, Korea
2012.9.20~9.24	Invitation Exhibition of Culture Garden 'On the Way to the Arboretum', Gyeonghui Palace Museum, Pochen, Korea
2013.5.20~6.8	34th SEOUL SCULPTURE SOCIETY-Sculpture, from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up to this day, Independence hall of Korea, Chunan, Korea
2013.12.30~2014.2.2	White & Black or Right & Wrong, the Gallery Curiosity, Seoul, Korea
2014.4.5~5.4	Strolling at a peach filed, Zaha museum, Seoul, Korea
2014.5.29~6.18	Friendship toward Strangers, Seoul Art Space Keumcheon, Seoul, Korea
2014.6.27~9.28	White Porcelain Sculpture Exhibition in Yanggu, Yanggu Porcelain Museum, Yanggu, Korea
2014.10.10~10.23	General Store, Boan-inn, Seoul, Korea
2014.11.20~12.10	Brushing the City against the Grain, Seoul Art Space Keumcheon, Seoul, Korea
2015.11.4~11.10	On the Way to Red, Beijing Institute of Fashion Technology, Beijing, China
2015	Artist Portfolio, Sabina Museum, Seoul, Korea
2015.3.2~3.6	On the Edge of Fusion, MIST Harlem, New York, USA
2015.5.6.~5.3	Paradox of a sculpture group, Zaha museum, Seoul, Korea
2015.6.11~6.30	Alive With, Seoul Art Space Geumcheon PS333, Seoul, Korea
2015.6.12~8.16	Encounter,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10.30~2016.2.14	Unconscious, SOMA Museum, Seoul, Korea
2016.5.31~6.12	INTRO,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oyang, Goyang, Korea
2016.6.16~7.5	2016 Place & Footnote,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16.6.24~8.6	When Words Fail, Hite collection, Seoul, Korea
2016.8.19~2017.3.19	As the Moon Waxes and Wane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6.10.7~11.6	Sung-buk document 3: Ongoing project, SungBuk Dowon, Seoul, Korea
2016.11.2~11.6	Deagu Art Sqaure-2016 Youth art Project, EXCO, Deagu, Korea
2017.4.7~5.31	The depth of Chalice, Art Space Sueno 339, Seoul, Korea
2017.6.1~6.11	Diversity Hybridizing: Taehwa River Eco-Art Festival, Ulsan, Korea The depth of Chalice,

	Art Space Sueno 339, Seoul, Korea
2017.6.2~6.4	ACC Gwangju Fringe International 'Tan, Tan, Tan,' 5.18 Democracy square, Old Jeollanamdo office yard, Asia Culture Center square, Gwangju, Korea
2017.11.18~1.18	paradox of a sculpture, Chung Mun Kyu Museum, Ansan, Korea
2017	Collecting the city, Bupyeong Art Center, Inchon, Korea
2018.9.1~10.21	Steel-Being: The tower we built up, F1963, Busan, Korea
2018.10.4~10.7	The Golden Chain: World Script Symposia, 34-1 Okin-dong, Seoul, Korea
2018.10.9~11.25	Unexpected Sculpture, Glass Island Museum, Ansan, Gyeonggi-do, Korea
2019.8.9~8.29	Researching Method for Social Sculpture, Amado Art Space, Seoul, Korea
2019.8.28~10.31	The Strolling Object, Ahn Sang chul Museum, Yangju, Gyeonggi-do, Korea
2019.12.2~12.14	A Solid Disequilibrium, Buk-gu Art center, Ulsan, Korea
2020.1.17~3.15	Black Milk of Dawn,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2020.6.16~10.4	Word and Writing, Meaning and Gesture, Lee Ungno Birth Place & Memorial Hall, Hongseong, Korea
2020.8.1~10.11	The Archivists, Buchon Art Bunker B39, Buchon, Korea
2020.8.15~2021.1.31	To the Reach a Star-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20.9.17~11.1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Changwon Sculpture Biennale, Sungsan Art Hole, Changwon, Korea
2021.7.6~7.31	42th SEOUL SCULPTURE SOCIETY '40×40×40', Kim Se-Choong Museum, Seoul, Korea
2021.8.6~8.26	21Centry Moment-On the Absolute, Art space Amado, Seoul, Korea
2021.9.30~11.20	Herzog & De Meuron. Exploring Songeun Art Space, Songeun Art Space, Seoul. Korea
2021.10.28~11.12	Round-Round-Round, Online exhibition, Seoul. Korea
2021.10.2~10.10	Tail of the River-Suwo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pace UZ, Suwon, Korea
2022.3.5~3.17	Yours, Mine And Ours, ART SPACE ARUM, Suwon, Korea
2022.6.14~7.3	EunPyung tumult, Sinsaok, Seoul, Korea
2022.7.15~7.24	From now to, Arioso gallery, NewmockryunJang, Ulsan, Korea
2022.8.27~9.23	A piece of Life, Nomad gallery, Yeosu, Korea
2022.9.28~10.9	Onsaemiro-Mobility, 111cm, Suwon, Korea
2022.9.1~9.9	Blackwater: facing Church St & Gyonam, 66 Church st., London, UK
2023.9.26~12.17	Theater/Post Media and Sit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Residency & Others

2007	selected the Young Artist by the Gallery KwanHoon, Seoul, Korea
2009	selected the 4th Registry Artist by the SOMA Drawing center, Seoul, Korea
2011	TakeOut Drawing & Museum(residency program), Seoul, Korea
2013	granted from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Culture and Arts Council Korea, Seoul, Korea
	Seoul Art Space Keumchun(residency program), Seoul, Korea
2014	Seoul Art Space Geumcheon Artist in Residence, Seoul, Korea
	Granted Artist for Art Support Program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15	Selected the mid-career Korean Artist by SongEu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16	National Art Residency Goyang Artist in Residence, Goyang, Korea
2017	Granted Artist for Art Support Program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Granted Art project Support Program, Gwangju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International fringe Festival organization, Gwangju, Korea
2018	'Kim Se-Choong Sculpture Award'- Young sculptor part, Kim Se Choong memorial work organization, Korea
	Asia Culture Center Open lap Creator in Residence, Gwangju, Korea
	Granted Art project Support Program, Suw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won, Korea
2022	Granted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Exchange fund, Art Council Korea

연기백 (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작가	연기백
총괄기획자	박성환
책임연구원	신양희
글	진휘연, 최태만, 에치젠 토시야, 신양희, 연기백
디자이너	배지선
영문번역	이슬기
일문번역	박성환
아키비스트	배진선
어시스턴트 아키비스트	강민수
도움	박서영, 이소임, 이예림, 최수연, 최희정
사진	가비스튜디오(서종현), 권오열, 김재범, 연기백, CJYART STUDIO(조준용), 최성욱, KC스튜디오, 황준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연기백, 아마도예술공간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조사-연구-비평〉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텍스트 및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 연구자, 사진가 및 각 기관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On the Art Historical Study on ( ) of Kibaik YUON

Artist	Kibaik YUON
Chief Researcher	PARK, Sung Hwan
Researcher	Shin Yanghee
Text	Jin, Whuiyeon, Choi Taeman, Toshiya Echizen, Shin Yanghee, Kibaik YUON
Design	Bae Jeesun
English Translations	Seul ki Lee
Japanese Translation	PARK, Sung Hwan
Archivist	Bae Jinseon
Assistant Archivist	Kang Minsu
Assistance	Park Seoyeong, Lee So Im, Yerim Lee, Choi Suyeon, Choi Hee-jung
Photo	gavi studio(Seo Jonghyun), Kwon Ohyeol, Kim Jaebum, Kibaik YUON, CJYART STUDIO(Junyong Cho), Choi Sung Wook, KC studio, Hwang Joon-hyeon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Arts Council Korea

© Kibaik YUON and Amado Art Space

*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2022–2023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Program.

* Copyright©2024 All rights are reserved to the artist, researcher, photographer and each respective organizati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mado Art Space/Lab 문화체육관광부 작가연비 조사구평